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수사(數詞) 대조 연구

— 현대몽골어의 집합수사, 분배수사, 반복수사, 불분명수사, 어림수사,
지소수사, 분수사를 중심으로 —

김 기 성*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대몽골어의 수사(數詞) 체계 속에서 ‘집합수사(хам тооны нэр/collective numerals)’, ‘분배수사(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distributive numerals)’, ‘반복수사(дахих тооны нэр/multiplicative numerals)’, ‘불분명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unclear numerals)’, ‘어림수사(тойм тооны нэр/approximative numerals)’, ‘지소수사(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diminutive numerals)’, ‘분수사(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fractional numerals)’ 등의 형태 및 구성, 또한 그의 의미, 기능, 용법 등을 정리해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응 가능한 한국어 수사(數詞) 및 수량사구(數量詞句) 등과 서로 대조해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대조를 통해 이들이 서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으며, 양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담화, 문맥 등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수사의 올바른 사용법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 등을 제시해 보았다.

[주제어] 수사, 집합수사, 분배수사, 반복수사, 불분명수사, 어림수사, 지소수사, 분수사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현대몽골어의 집합수사, 분배수사, 반복수사, 불분명수사, 어림수사, 지소수사, 분수사와 한국어의 수사 및 수량사구 대조 |
| II. 현대몽골어의 집합수사, 분배수사, 반복수사, 불분명수사, 어림수사, 지소수사, 분수사 | IV. 결론 |

* 단국대학교 연구전담 조교수 / komong@naver.com

I. 서 론

본 연구는 현대몽골어의 수사(數詞) 체계 속에서 ‘집합수사(хам тооны нэр)’, ‘분배수사(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¹⁾ ‘반복수사(дахих тооны нэр)’, ‘불분명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 ‘어림수사(тойм тооны нэр)’, ‘지소수사(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 ‘분수사(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 등의 형태 및 구성, 또한 그의 의미, 기능, 용법 등을 정리해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응 가능한 한국어 수사(數詞) 및 수량사구(數量詞句) 등을 서로 대조 분석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²⁾ 또한 이러한 대조 분석을 통해 이들이 서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봄, 양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담화, 문맥 등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들 수사의 올바른 사용법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미 김기성(2016b)에서 비교, 대조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대몽골어의 수사 체계(범주)와 한국어의 수사 체계를 총체적으로 정리, 분류해 놓은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에 대해 또다시 언급,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를 인용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몽골어의 수사 체계 속에서 ‘기본수사(үндсэн тооны нэр)’와 ‘순서수사(дэс тооны нэр)’에 대한 대조 연구도 일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체계 수사들에 초점을 맞춰 계속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각 개별언어의 수사 관련 선행연구 또는 양 언어의 수사 비교, 대조와 관련한 선행연구³⁾ 등에 대해서는 2장, 3장 등의 논의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열거, 언급하지는 않기로 한다.

본고의 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현대몽골어의 ‘집합수사(хам тооны нэр)’, ‘분배수사(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 ‘반복수사(дахих тооны нэр)’, ‘불분명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 ‘어림수사(тойм тооны нэр)’, ‘지소수사(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 ‘분수사(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이를 논의 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3장에서는 여기에 일차적으로 대응 가능한 한국어의 수사 및 수량사구 등을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상호 대조해 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2장, 3장의 내용들을 요약해 결론짓기로 한다.

-
- 1) 본고에서는 편집, 출판 등의 사정으로 ‘몽골어 정서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 2) 여기에서 말하는 한국어 수사(數詞) 및 수량사구(數量詞句)는 수 또는 수량 표현과 관련한 넓은 의미의 모든 어휘들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간혹 ‘수량 어휘(수 관련 어휘)’라는 말로 대신하기로 한다. 현대몽골어의 수사 체계는 전통적으로 본고의 논의 대상인 ‘집합수사(хам тооны нэр)’, ‘분배수사(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 ‘반복수사(дахих тооны нэр)’, ‘불분명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 ‘어림수사(тойм тооны нэр)’, ‘지소수사(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 ‘분수사(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 외에도 ‘기본수사(үндсэн тооны нэр)’와 ‘순서수사(дэс тооны нэр)’를 포함해 독립된 품사의 한 범주로서 7-9개의 하위 범주 체계(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지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어는 수사의 범주를 독립된 품사로 따로 인정하지 않고 명사나 대명사의 하위 범주로 여기거나 또는 인정하더라도 대부분 기본수사와 순서수사의 체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 양 언어를 서로 대조 비교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양 언어의 서로 다른 체계 속에서 본고의 대상인 몽골어 수사들과 서로 비교, 대조해 볼 대상은 실질적으로 한국어의 수사(數詞) 및 수량사구(數量詞句), 즉 ‘수량 어휘(수 관련 어휘)’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금까지 양 언어의 ‘수사(數詞)’ 및 그와 관련지어 살펴 볼 수 있는 ‘수량사(quantifier)’, ‘분류사(classifier)’ 등에 관한 선행 연구는 강신(1995), 이성규(2006), 아론자르갈(2015), 김기성(2016b) 정도에 머무른다.

II. 현대몽골어의 집합수사, 분배수사, 반복수사, 불분명수사, 어림수사, 지소수사, 분수사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현대몽골어의 ‘집합수사(хам тооны нэр)’, ‘분배수사(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 ‘반복수사(дахих тооны нэр)’, ‘불분명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 ‘어림수사(тойм тооны нэр)’, ‘지소수사(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 ‘분수사(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는 전통적으로 현대몽골어 수사 체계의 하위 범주들로서 ‘기본수사/기수사(үндсэн тооны нэр)’와 ‘순서수사/서수사(дэс тооны нэ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다.

현대몽골어의 수사(數詞) 체계 및 범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분류에 따라 김기성(2016b: 117~121)에서 이미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Э.Вандуй(1966), П.Бямбасан(1975), Л.Балдан(1987), Rita Kullmann, D.Tserenpil(1996), Ц.Өнөрбаян(2004),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2012),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등과 같은 기존의 일부 문법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사의 체계 및 그의 형태, 의미, 기능 등을 종합해 표로 정리하고, 논의 대상의 기준이 되는 현대몽골어 수사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이들 가운데에서 ‘집합수사(хам тооны нэр)’, ‘분배수사(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 ‘반복수사(дахих тооны нэр)’, ‘불분명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 ‘어림수사(тойм тооны нэр)’, ‘지소수사(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 ‘분수사(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 등의 형태, 의미, 기능 등을 기준으로 여기에 대응 가능한 유사한 의미, 기능의 한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를 대조 분석한다.

한편, 현대몽골어의 수사 체계와 대응 가능한 한국어 수사 체계와 그 형태들도 김기성(2016b: 122~123)에서 볼 수 있는데, 왕문용·민현식(1993), 최현배(1994), 서정수(1996), 채완(2001), 이관규(2005), 이익섭(2005), 김인균(2008), 김종록(2008), 남기심·고영근(2014), 최형용(2016) 등을 참조해 표로 정리, 제시하고 있다.

III. 현대몽골어의 집합수사, 분배수사, 반복수사, 불분명수사, 어림수사, 지소수사, 분수사와 한국어의 수사 및 수량사구 대조

1. ‘집합수사/хам тооны нэр/’⁴⁾와의 대조

현대몽골어의 ‘집합수사/хам тооны нэр/’는 기본수사와 함께 사람, 사물, 현상의 집합(집합체)을 가리키

4) 본고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집합수사’는 Ц.Тэрбиш(1994: 95)의 ‘collective numeral’, Rita Kullmann, D.Tserenpil (1996: 244)의 ‘collective numerals’,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378)의 ‘collective numerals’와 Э.Вандуй (1966: 118~127), Ц.Жанчивдорж, Б.Рагчаа(1967: 65), П.Бямбасан(1975: 73~83), Л.Балдан(1987: 55~69), Ц.Өнөрбаян(2004: 236~247),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2012: 145~148),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13~131) 등과 같은 기존의 여러 문법서에 소개되고 있는 ‘хам тооны нэр’를 가리킨다. 현대몽골어 집합수사, 즉 ‘хам тооны нэр’ 이외의 다양한 명칭 및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24)을 참조할 수 있다.

거나 특정의 분명한 수를 지닌 하나의 완전체를 가리킨다. 주로 ‘хэдүүл(꺄뫓이, 뫓이서(함께, 모두, ...))’⁵⁾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한다.

현대몽골어의 기본수사에 ‘-уул, -үүл’ 또는 ‘-уулан, -үүлэн’ 접사를 연결해 집합수사를 형성한다. ‘-уул, -үүл’ 뒤에 재귀어미(접사)를 연결할 경우 단지 ‘-аа, -ээ’ 어미를⁶⁾ 모음조화에 따라 연결해 사용하는데(Э.Вандуй 1966: 124), ‘хоёул(аа)/хоёулан, гурвуул(аа)/гурвуулан, дөрвүүл(ээ)/дөрвүүлэн, тавуул(аа)/тавуулан, зургуул(аа)/зургуулан, долуул(аа)/долуулан, наймуул(аа)/наймуулан, есүүл(ээ)/есүүлэн, арвуул(аа)/арвуулан, хориул(аа)/хориулан, зуугуул(аа)/зуугуулан’처럼 사용한다.⁷⁾ 한편, 기본수사 ‘нэг(1)’의 경우, 여기에 ‘-уул, -үүл’ 또는 ‘-уулан, -үүлэн’을 연결해 사용하지는 않으며, 별도로 ‘ганцаар(혼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⁸⁾

한국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격에 한해서 고유어 기본수사에 ‘-이(함께, 모두, 다같이, ...)’ 또는 ‘-이서(함께, 모두, 다같이, ...)’ 등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⁹⁾ 하지만 역시 고유어 기본수사 ‘하나(1)’에 ‘*하나이’, ‘*하나이서’처럼 사용하지는 않으며, 몽골어처럼 별도로 ‘혼자, 혼자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현대몽골어나 한국어 모두 ‘1’이라고 하는 수사를 집합수사의 의미로 나타내고자 할 때, 다른 수사들처럼 ‘-уул, -үүл’ 또는 ‘-и, -и서’ 등을 연결하지 않고 저마다 ‘ганцаар(аа)’ 또는 ‘혼자, 혼자서’라고 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¹⁰⁾ 이들에 대한 사용 예와 그에 대응 가능한 한국어의 예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¹¹⁾ ганцаар(аа) - (혼자, 혼자서), хоёул(аа)/хоёулан - (둘이, 둘이서), гурвуул(аа)/гурвуулан - (셋이, 셋이서), дөрвүүл(ээ)/дөрвүүлэн - (넷이, 넷이서), тавуул(аа)/тавуул

5) 일부 의문사에 대한 형태, 의미, 기능 등에 대해서는 김기성(2016a)을 참조할 수 있다.

6) Ц.Өнөрбаян(2004: 244)에서는 ‘-аа(-ээ)’를 재귀어미라 칭하지 않고 ‘нэмэлт авиа(첨가음)’라 명명하면서, 현대몽골어에서는 집합수사 형성의 -уул(-үүл) 접사 뒤에 -аа(-ээ)라는 첨가음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 관습화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7) ‘хоёр(2), зургаа(6), долоо(7)’와 같은 기본수사에 ‘-уул, -үүл’ 또는 ‘-уулан, -үүлэн’을 연결할 때는 해당 단어의 끝에 있는 ‘р’, ‘аа’, ‘оо’를 빼버리고 연결하며, 각각 ‘хоёул(аа)/хоёулан(둘이)’, ‘зургуул(аа)/зургуулан(여섯이)’, ‘долуул(аа)/долуулан(일곱이)’처럼 변하게 된다.

8) 집합수사는 사람과 사물의 집합(집합체)을 나타내기 때문에 논리학적 측면에서 ‘нэг(1)’라는 수사에 집합수사의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대몽골어에서는 ‘ганцаар(혼자)’라는 단어(어휘)를 집합수사라고 보고 있다(Ц.Өнөрбаян 2004: 244).

9) 서정수(1996: 532)에서는 고영근, 남기십 등의 말을 인용해 ‘-이’ 또는 ‘-이서’가 사람의 수효를 헤아릴 때에만 사용하는 ‘인수사(人數詞)’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는 ‘-이서’처럼 ‘-이’에 ‘서’ 조사를 붙여 사용할 수 있지만,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는 ‘서’ 등과 같은 조사가 따로 첨가될 수 없다고 하며, 각각 “그 사람들 둘이(서/가) 걸어 갔다.”, “사과 둘이(*서/*가) 굴러 간다”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한편, 현대몽골어에는 이러한 구별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으며, ‘-уул, -үүл’ 또는 ‘-уулан, -үүлэн’이 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는 한국어의 ‘인수사(人數詞)’처럼 해석, 대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한편으로 양 언어가 갖는 미세한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즉, 한국어는 사람의 수효를 헤아릴 때만 사용하는 ‘-이서’와 같은 다른 형태가 있지만 몽골어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10) 이러한 의견은 이미 이성규(2006: 10)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어와 몽골어에서 집합 수사를 만드는 접사는 다르지만 1의 수에 있어서 별도의 단어를 보충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단어는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11) 본고에서의 일부 몽골어 예문들은 Rita Kullmann, D.Tserenpil(1996: 234~244), П.Бямбасан(1975: 73~80), Л.Балдан(1987: 55~61), Ц.Тэрбиш(1994: 90~105), Ц.Өнөрбаян(2004: 236~244),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13~124) 등에서 참조함.

ан - (다섯이, 다섯이서), зургуул(аа)/зургуулан - (여섯이, 여섯이서), долуул(аа)/долуулан - (일곱이, 일곱이서), наймуул(аа)/наймуулан - (여덟이, 여덟이서), есүүл(э э)/есүүлэн - (아홉이, 아홉이서), арвуул(аа)/арвуулан - (열이, ?열이서, 열 명이서), хориул(аа)/хориулан - (스물이, ?스물이서, 스무명이서), зуугуул(аа)/зуугуулан - (백이, ?백이서, 백명이서)

현대몽골어 집합수사의 특징 중 하나는 주격 형태로서 실질명사 앞에서 관형어(한정어)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명사, 대명사의 뒤에 위치하게 된다(2. ㄱ, ㄴ). 또한 기본수사에 ‘хамт(함께, 모두)’, ‘цуг(함께, 모두)’ 등과 같은 보조사를 취해 통사론적 방법으로 집합수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2. ㄷ, ㄹ)(Ц.Ө нөрбаян 2004: 244).

(2) ㄱ. Бид гурвуул ирлээ.

① 우리(는) 셋(이, 이서) (함께) 왔습니다. (Бид / гурвуул ирлээ.)¹²⁾

② 우리 셋(은) (함께) 왔습니다. (Бид гурвуул / ирлээ.)

ㄴ. Дорж, Цэрэн, Дулмаа гурвуулаа хөдөөнөөс иржээ.

① 더르지, 체령, 돌마(는) 셋(이, 이서) (함께, 모두, 다같이) 시골에서 왔습니다.

ㄷ. Бид гурав хамт явахаар шийдлээ.

① 우리 셋(은) 함께 가려고 결정하였습니다.

② 우리 셋(이, 이서) 함께 가려고 결정하였습니다.

ㄹ. Долгор, Цэрэн хоёр хамт ажилладаг.

① 더르지와 체령(은) 함께 근무합니다.

② 더르지와 체령(은) 둘(이, 이서) 함께 근무합니다.

③ 더르지와 체령 둘(은) 함께 근무합니다.

현대몽골어의 집합수사는 모든 격변화¹³⁾ 함께 담화상황에 따라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한정

12) ‘(Бид / гурвуул ирлээ.)’(2. ㄱ①), ‘(Бид гурвуул / ирлээ.)’(2. ㄱ②)’에서 ‘/’는 끊어 읽기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디에서 잠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각각 ‘우리는 / 셋(이)이서 (함께, 모두, 다같이) 왔습니다. (2. ㄱ①)’와 ‘우리 셋(은) / (함께, 모두, 다같이) 왔습니다. (2. ㄱ②)’처럼 서로가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는 ‘-уул, -үүл’이 꼭 한국어의 ‘이’, ‘이서’와만 일대일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어느 특정한 문장에서 각 문장성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서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은 한국어와도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13) 현대몽골어 집합수사의 격변화는 ‘-уул, -үүл’을 연결한 주격 형태에 어간형성 ‘н(숨은 н)’과 그 앞에 관계모음 ‘а, э’를 집어 넣은 형태, 즉 ‘-уулан, -үүлэн’에 각 격어미를 연결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속격(-ын, -ийн)’, ‘탈격(-аас⁴⁾’, ‘도구격(-аар⁴⁾’ 앞에 ‘г’ 자음을 넣거나 목적격으로 ‘-ыг, -ийг’가 아닌 ‘г’ 어미를 취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대한 일부 예를 들면 ‘2(хоёр): хоёул(주격), хоёулангийн(속격), хоёуланд(여·처격), хоёуланг(목적격), хоёулангаас(탈격), хоёулангаар(도구격), хоёулантай(공동격), хоёулан руу(방향격)’, ‘б(зургаа): зургуул(주격), зургуулангийн(속격), зургууланд(여·처격), зургууланг(목적격), зургуулангаас(탈격), зургуулангаар(도구격), зургуулантай(공동격), зургуулан руу(방향격)’ 등과 같다.

어), 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 125). 이에 대한 일부 예와 한국어의 대응 예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예문은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25)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한다.

- (3) ㄱ. Гурвуулаа зэрэг зэрэг хэлж байв. (주어의 기능)
 ① 셋{이, 이서 (함께, 모두, 다같이)} (서로들)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
 ② 셋{은 (함께, 모두, 다같이)} (서로들)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
- ㄴ. Дөрвүүлэнг нь явуулаарай. (목적어의 기능)
 ① 넷{을 (함께, 모두, 다같이)} 보내십시오.
- ㄷ. Гурвууланд нь адилхан өгсөн шүү. (목적어의 기능)
 ① 셋{에게 (?함께, 모두, 다같이)} 똑같이 주었어요.
- ㄹ. Гурвуулангаар нь бичүүлэв. (목적어의 기능)
 ① 셋{으로 하여금 (함께, 모두, 다같이)} 쓰게 했습니다.
- ㅁ. Гурвуулантай нь уулзана. (목적어의 기능)
 ① 셋{과 (함께, 모두, 다같이)} 만납니다(만나겠습니다).
- ㅂ. Хоёулангийнх нь хүүхэд нь гадаадад сурдаг гэнэ. (관형어의 기능)
 ① 두 가정(집) (?함께, 모두, 다같이){의} 아이들은 외국에서 공부합니다 (유학합니다).
- ㅅ. Гурвуулан руу нь очоорой. (부사의 기능)
 ① 세{방향으로 (함께, 모두, 다같이)} 가십시오.

2. ‘분배수사(배분수사, 구분수사)/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¹⁴와의 대조

현대몽골어의 ‘분배수사(배분수사, 구분수사)/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는 같은 종류의 많은 사물을 동등한 수로 분배, 배분, 구분하는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Ц.Өнөрбаян 2004: 245). 주로 ‘хэд хэдээр?(몇 몇씩, 몇 몇으로, 얼마 얼마로, ...)’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분배수사는 일반적으로 (1)기본수사를 반복해 사용하는 방법 (2)기본수사에 ‘-аад’⁴⁾ 접사를 모음조화 규칙에 맞게 연결해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Л.Балдан 1987: 62~63;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

14) 본고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분배수사(배분수사, 구분수사)’는 Ц.Тэрбиш(1994: 96)의 ‘distributive numeral’, Rita Kullmann, D.Tserenpil(1996: 251~254)의 ‘distributive numerals’,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378)의 ‘distributive numerals’와 Э.Вандуй(1966: 118~127), П.Бямбасан(1975: 73~83), Л.Балдан(1987: 55~69), Ц.Өнөрбаян(2004: 236~247),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2012: 145~148),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13~131) 등과 같은 기존의 여러 문법서에 소개되고 있는 ‘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를 가리킨다. 현대몽골어의 ‘분배수사(배분수사, 구분수사)’, 즉 ‘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 이외의 다양한 명칭 및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27)을 참조할 수 있다.

127~129).

통사론적 방법으로 기본수사를 반복해 사용할 때, 반복해 사용한 수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한정하게 되면 그 반복한 두 번째 수사는 ‘н(숨은 н)’을 취하게 된다(4. 7). 반면 이러한 명사 없이 바로 서술어 등이 오는 경우는 답화, 문맥 등의 상황에 따라 뒤의 두 번째 수사에 도구격 어미 ‘-аар⁴’나 목적격(대격) 어미 ‘-ыг, -ийг’ 등을 연결해 사용한다(4. 4, 5). 즉, 통사론적 방법으로 기본수사를 반복해 사용하는 경우는 뒤의 수사에 격어미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기본수사에 분배수사 형성의 ‘-аад⁴’ 접사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는 ‘арваад(10여개씩), хориод(20여개씩), гучаад(30여개씩), дөчөөд(40여개씩), тавиад(50여개씩), жараад(60여개씩), далаад(70여개씩), наяд(80여개씩), ерээд(90여개씩), зуугаад(100여개씩), мянгаад(1000여개씩)’ 등과 같이 주로 10 이상의 수를 나타내는 기본수사에 연결해 사용한다(Л.Балдан 1987: 63). 또한 드물지만 문어체 상에서 ‘нэг(1)’를 ‘нэжээд/нэжгээд(하나씩)’로, ‘хоёр(2)’를 ‘хошоод(둘씩)’로도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¹⁵⁾

한편, 기본수사에 ‘-аад⁴’ 접사를 모음조화 규칙에 맞게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이는 형태상으로 뒤에 언급할 ‘어림수사(부정수사, 개수사 概數詞)/тойм тооны нэр/’와 같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의미상으로 어느 특정한 사물을 몇 몇씩 또는 몇 몇으로 분배, 배분하고 있는지에 각별히 주의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전후 문맥이나 답화 등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것이 분배, 배분의 의미를 지닌다면 이러한 경우 추정이나 어림집작의 의미를 지니는 어림수사와의 구별이 가능하겠지만, 이 형태는 대체적으로 일반 서술문에서 어림수사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분배수사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전후 문맥, 답화상황, 문장 내의 기타 성분(보조사)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목해 Ж.Лувсандорж(1976), П.Бямбасан(1975), Rita Kullmann, D.Tserenpil(1996), Ц.Өнөрбаян(2004) 등과 같은 여러 학자들은 아예 이 형태를 분배수사 형성 방법에서 제외시키고 기본수사의 반복 방법만을 언급하고 있으나,¹⁶⁾ 반면,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28~129) 등은 해당 -аад⁴ 형태가 비록 제약적이기는 하지만 ‘бүр(마다, 별로), болгон(마다, 별로), тус бүр(마다, 별로)’ 등과 같은 보조사와 함께 쓰이면 분배수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⁷⁾

현대몽골어에서 분배수사로서의 사용은 위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기본수사를 반복해 사용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며, 해당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

15) ‘Ким багш оюутнууддаа нэжээд дэвтэр, хошоод ном өглөө.(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 (권)씩의 공책, 두 (권)씩의 책을 주었습니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6) П.Бямбасан(1975: 81)은 “현대몽골어에서 이러한 접사를 연결해 파생한 분배수사는 нэжгээд, хошоод 이외에는 없으며, 그나마 이 단어조차 현대몽골어의 문학어에서는 아주 드물게 사용된다.”고 언급했으며, Ц.Өнөрбаян(2004: 246)은 “일부 학자들은 어림수사 형성의 -аад(-ээд, -оод, -өөд)가 нэжгээд, хошоод 등과 같은 분배수사의 구성에 있는 -ээд(-оод)접사와 동일한 접사라고 보아 ‘арваад, хориод, гучаад, дөчөөд’ 등과 같은 어림수사 단어들을 분배수사라고 보았다.”고 각각 언급하였다.

17)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28~129)은 -аад⁴ 형태가 분배수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Хүн бүрд арваадыг өгөх, айл болгонд зуугаадыг тараах”(사람마다 10여(개)씩을 주고, 가정마다 100여(개)씩을 나눠주기) 등과 같은 예를 들고, 다만 이러한 경우는 бүр(마다, 별로), болгон(마다, 별로), тус бүр(마다, 별로) 등과 같은 보조사들 함께 사용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언급하였다.

지만 ‘-аад’¹⁸접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문맥이나 담화 등의 여러 상황, 또는 제약적으로 문장 내에서 ‘бүр(마다, 별로), болгон(마다, 별로), тус бүр(마다, 별로)’와 같은 보조사를 함께 사용하기 전에는 분배수사로서의 의미 보다는 어림수사(-가량, -쯤, -여, -경, 남짓, 정도, ...)로서의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문 (4.ㄷ)과 같은 문장을 접했을 때, 이것이 분배수사의 의미로 쓰였다면 당연히 (4.ㄷ①)처럼 해석되는 것이 옳겠지만, 이는 대부분 (4.ㄷ②)처럼 어림수사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편적이다.¹⁸⁾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бүр(마다, 별로), болгон(마다, 별로), тус бүр(마다, 별로)’ 등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어 분배수사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4.ㄴ)과 (4.ㄴ①)과 같은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우 이것은 엄밀히 말해 순수한 분배수사로서의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보기보다는 어림수사와 분배수사의 의미가 함께 혼재된 의미해석(10여 권씩, 20여 자루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ㄱ. Дулмаа, Бат хоёрт тав таван ном өгсөн.

① 돌마와 바트에게 ?다섯 다섯(권)(의)다섯(권) 다섯(권)(의) 책(을) 주었습니다.

② 돌마와 바트에게 다섯(권)¹⁹⁾씩(다섯(권) 다섯(권)씩) 책(을) 주었습니다.

ㄴ. Сурагчид тав таваар жагслаа.

① 학생들은 ?다섯 다섯(명)으로(다섯(명) 다섯(명)으로) 줄을 섰습니다.

② 학생들은 다섯(명)씩(다섯(명) 다섯(명)씩) 줄을 섰습니다.

ㄷ. Ширээн дээр байгаа номуудаас нэг нэгийг авчээ.

① 책상 위에 있는 책들에서 ?하나(한 권) 하나(한 권)를(하나(한 권) 하나(한 권)를) 가졌습니다.

② 책상 위에 있는 책들에서 하나(한 권)씩(하나(한 권) 하나(한 권)씩) 가졌습니다.

ㄹ. Багш оюутнуудад арваад дэвтэр, хориод харандаа хуваарилаж өгөв.

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10(권)씩(의) 공책과 *20(자루)씩(의) 연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 문장만 갖고는 분배수사의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어림수사의 의미)

②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10(권)가량(의) 공책과 20(자루)가량(의) 연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림수사)

ㅁ. Багш оюутан бүрд(болгонд, тус бүрд) арваад дэвтэр, хориод харандаа хуваарилаж өгөв. (분배수사)

18) 몽골 토박이 화자이기도 한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Д.Бизья 교수에게 다양한 상황 설명과 함께 수차례 확인 한 결과, (4.ㄷ)과 같은 문장에서는 (4.ㄷ①)과 같은 분배수사로서의 의미가 나오기는 힘들고, 일반적으로 (4.ㄷ②)와 같은 어림수사로서의 의미로만 해석되어진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Д.Бизья 교수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한다.

19) 한국어에서는 ‘다섯 권(씩)의 책’처럼 한정하는 수사 ‘다섯’과 피한정의 명사 ‘책’ 사이에 수량사(분류사) ‘권’ 등이 오는 경우가 거의 필수적인데 반해, 몽골어에서는 ‘таван ном[다섯 (권)의 책]’처럼 수량사(분류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① 선생님은 학생 마다 10여(권)씩(의) 공책과 20여(자루)씩(의) 연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어의 경우는 몽골어의 분배수사에 대응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고유어, 한자어 기본수사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씩’ 등을 들 수 있으며, 기본수사에 ‘-аад⁴’를 연결한 형태가 분배수사로서의 의미로 사용될 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бүр, болгон, тус бүр’ 등은 ‘- 마다, - 별로’ 등으로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흔 아홉(99)’까지만 고유어 기본수사가 존재하며, ‘백(100)’ 이상은 ‘백하나, 백둘, 백셋, ...’처럼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형이 사용된다. 한편, 한국어에 있어서도 (4. 7.②, ㄴ.②, ㄷ.②)의 경우처럼 기본수사를 반복 사용해서 분배수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분배수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적 측면에서는 서로가 유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²⁰⁾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분배수사와 어림수사의 통사론적 기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질문도 서로 같지 않다. 분배수사는 주로 ‘хэд хэдээр?(몇 몇씩, 몇 몇으로, ...)’라는 분명한 질문에 대답하는 반면, 어림수사는 ‘хэд орчим?(어느 정도, 얼마 가량, ...), хэдий хир?(얼마나, 어느 정도, 얼마 가량, ...), хэдий чинээн?(어느 정도, ...)’ 등과 같은 추정(어림짐작)의 질문에 대답한다. 분배수사는 분배, 배분의 의미를, 어림수사는 추정, 어림짐작의 의미를 지닌다.

3. ‘반복수사(배수사, 회수사)/дахих тооны нэр/²¹⁾와의 대조

현대몽골어의 ‘반복수사(배수사, 회수사)/дахих тооны нэр/’는 어떤 특정한 동작, 행위의 발생 횟수 또는 몇 번(몇 차례) 반복해 발생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주로 ‘хэдэн удаа?(몇 번, 몇 차례, ...), ‘хэдэнтээ(몇 번, 몇 차례, ...)?’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Л.Балдан 1987: 63; Ц.Тэрбиш 1994: 97).

반복수사는 일반적으로 (1)기본수사의 ‘н(숨은 н)’ 접사를 취한 어간에 ‘-т, -таа⁴’ 접사를 연결해 형성하거나,²²⁾ (2)기본수사 뒤에 ‘удаа(번, 차례, ...), ‘дахин(배, 곱, 곱질, 다시, 재차, 거듭, ...)’ 등과 같은 단어

20) 이러한 의견은 이미 이성규(2006: 11)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몽골어에 나타나는 기본 수사를 반복하여 분배 수사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한국어에도 나타난다. 즉, ‘하나씩, 둘씩’이라고 하지만 ‘하나 하나씩, 둘 둘씩’이라고도 한다. 한국어와 몽골어는 분배 수사를 발생시키는 접사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기본 수사를 반복하여 분배 수사를 나타내는 방법에서는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21) 본고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반복수사(배수사, 회수사)’란 Ц.Тэрбиш(1994: 97)의 ‘repeated numeral’, Rita Kullmann, D.Tserenpil(1996: 249~250)의 ‘multiplying numerals’,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378)의 ‘multiplicative numerals’와 Э.Вандуй(1966: 118~127), П.Бямбасан(1975: 73~83), Л.Балдан(1987: 55~69), Ц.Өнөрбаян(2004: 236~247),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2012: 145~148),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13~131) 등과 같은 기존의 여러 문법서에 소개되고 있는 ‘дахих тооны нэр’를 가리킨다. 현대몽골어의 ‘반복수사(배수사, 회수사)’에 대한 ‘дахих тооны нэр’ 이외의 다양한 명칭 및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29)을 참조할 수 있다.

22) 여기에서 ‘-т’는 ‘нэг/н/(1)’라고 하는 수사에서 파생한 ‘нэгэнт’의 ‘-т’를 말한다. П.Бямбасан(1975: 82)은 “이 -т는 일부 시인이나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나 간혹 나올 뿐이다. Нэг(1)라고 하는 수사에서 파생한 нэгэнт(벌써, 이미, ...)라는 단어는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편이지만 нэг удаа(한번)라는 의미 표현은 잃어버리고 ямар ч гэсэн(아무튼, 하여간, ...)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Ц.Өнөрбаян(2004: 246)은 “удаа(번, 차례)라는 단어를 취하면서 만들어진 수사에서 그것을 빼버리고 нэгэнт(한번), гурвантаа(세 번), дөрвөнтөө(네 번), арвантаа(열 번)라는 형태론적 합성형태

(보조사)를 따로 띄어 함께 사용해 형성한다.²³⁾

‘-г, -таа’⁴⁾와 같은 접사를 연결해 반복수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대부분 문어체에서나 많이 볼 수 있으며, 어간 형성 ‘н(숨은 н)’ 접사를 취한 기본수사에 ‘хоёронтоо(두 번),²⁴⁾ гурвантаа(세 번), дөрвөнтөө(네 번), тавантаа(다섯 번), зургаантаа(여섯 번), долоонтоо(일곱 번)’ 등과 같이 주로 10 이하의 작은 수에 사용한다(5. ㄱ, ㄴ)(Rita Kullmann, D.Tserenpil 1996: 249).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수사 뒤에 ‘удаа(번, 차례, ...), ‘дахин(배, 곱, 곱절, 다시, 재차, 거듭, ...)’ 등과 같은 단어(보조사)를 따로 띄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5. ㄷ, ㄹ, ㅁ, ㅂ). 이 때 ‘удаа’ 앞의 수사는 주로 3이상의 수에서 어간형성접사 ‘н(숨은 н)’을 취하며(5. ㄷ), ‘дахин’ 앞의 수사는 그냥 사용한다(5. ㅁ, ㅂ). 한편, ‘удаа’와 ‘дахин’은 문맥과 담화상황 등에 따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5. ㄷ, ㅂ). 반복수사에 대한 일부 예와 한국어의 대응 예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5) ㄱ. Тэр гурвантаа буудсан боловч оносонгүй.

① 그는 세 번(차례, ...) 쏘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못 맞췄다).

ㄴ. Тэр хоёронтоо толгой дохиод гарч одов.

① 그는 두 번(차례, ...) 머리를 끄덕이고는 나가버렸습니다(떠났다).

ㄷ. Би тэр багштай нэг удаа уулзсан.

① 나는 저 선생님과 한 번(차례, ...) 만났습니다.

ㄹ. Би энд гурван удаа(гурав дахин) ирсэн.

① 나는 여기에 세 번(차례, ...)(세 (번) 다시) 왔습니다.

ㅁ. Монгол улсын хүн ам хоёр дахин(*хоёр удаа) өсөв.

① 몽골의 인구(는/가) 두 배(곱, 곱절, *(번)다시, *(번)재차, *(번)거듭[*두 번(차례)] 증가했다.

ㅂ. Авто машин жолоодох эрхийн шалгалтаанд дөрөв дахин(дөрвөн удаа) унасан.

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네 (번) 다시(재차, 거듭, ...)(네 번(차례)) 떨어졌습니다.

한국어의 경우는 몽골어의 반복수사에 대응시킬 수 있는 형태로 고유어 기본수사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

가 만들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발생 횟수를 나타내고자 ‘нэг’를 반복수사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로 ‘нэг удаа’ 또는 ‘нэгэн удаа’처럼 사용하며, ‘нэгэнг’처럼 사용하지는 않는다. 몽골어 다음 () 안의 한국어는 필자의 해석임.

23) Ц.Өнөрбаян(2004: 246)은 “3이상의 수사에 удаа가 오게 되면 그 수사는 -н을 취한 어간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дахин이 오게 되면 그 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н을 취하지 않은 어간으로 사용한다.”고 언급하면서 ‘гурван удаа - гурав дахин’, ‘дөрвөн удаа - дөрөв дахин’, ‘арван удаа - арав дахин’ 등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24) ‘хоёр’은 원래 어간 형성의 н(숨은 н)이 없지만 근래에 와서는 마치 있었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유원수(2009: 117, 120)에서도 “хоёр(둘)의 기저형이 마치 хоёрон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현상인 듯싶다.”, “그러나 ‘2일’을 뜻하는 형태들 가운데 хоёрон은 발생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유추의 결과로 보인다.”고 각각 언급하고 있다.

는 ‘번’, ‘차례’, ‘(번) 다시’, ‘배’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5)의 예문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т, -таа’⁴⁾, ‘удаа’에는 ‘번’, ‘차례’ 등을, ‘дахин’에는 ‘(번) 다시’, ‘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현대몽골어의 구어체나 문어체에서는 (6)의 예문처럼 ‘удаа’와 ‘дахин’ 같은 단어를 생략하고 그냥 수사 자체만으로 뒤에 오는 동사와 연결해 반복수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Ц.Өнөрбаян 2004: 246), 한국어의 경우는 이에 대응시킬 수 있는 ‘번’, ‘차례’, ‘(번) 다시’, ‘배’ 등의 단어를 이와 같이 생략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반복수사의 의미 표현에 있어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가 갖는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6) ㄱ. Би түүнтэй гурав (дахин) уулзсан.(Ц.Өнөрбаян 2004: 246)

① 나는 그와 세 (번 다시[재차, 거듭 ...], 번[차례, ...]) 만났습니다.

② *나는 그와 세 만났습니다.

ㄴ. Өчигдөр би танайд хоёр (удаа) очсон боловч дүүтэй чинь уулзаж чадсангүй.

① 어제 나는 당신네 집에 두 (번[차례, ...]) 갔지만 당신 동생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② *어제 나는 당신네 집에 두 갔지만 당신 동생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4. ‘불분명수사(불명확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²⁵⁾와의 대조

현대몽골어의 ‘불분명수사(불명확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는 만물 또는 어느 특정한 사물의 수효와 수량을 분명히 또는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많고 적음을 대략 추정해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хэд(몇, 얼마), хичнээн(얼마/몇/, 어느 정도, 얼마만큼), хэдий хир(얼마나, 어느 정도, 얼마만큼), хэдий чинээ(н)(얼마나, 어느 정도, 얼마만큼)’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Э.Вандуй 1966: 125; Л.Балдан 1987: 64).

일반적으로 ‘олон(많은, 여럿), нилээд(꽤)많은, 여럿, цөөн(적은), цөөхөн(적은), хэдэн(몇, 얼마), хэдхэн(몇, 얼마), хэсэг(일부, 부분), хэсэгхэн(일부, 부분), ...’ 등과 같은 여러 단어들을 가리킨다.²⁶⁾ ‘분명

25) 본고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불분명수사(불명확수사)’란 Ц.Тэрбиш(1994: 98)의 ‘unclear numeral’과 Э.Вандуй(1966: 125), Л.Балдан(1987: 64) 등과 같은 기존의 여러 문법서에 소개되고 있는 ‘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를 가리킨다. 한편, П.Бямбасан(1975), Rita Kullmann, D.Tserenpil(1996), Ц.Өнөрбаян(2004),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2012),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등은 해당 수사의 범주를 제외시키고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26) Э.Вандуй(1966: 125)에서는 ‘мянга(1000), түм(10000), далан долоон(77), зуун долоон(107)’ 등과 같은 수사들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 수사들이 ‘정수(확정수, 분명수)’로서 그 수효나 수량을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맥이나 담화 상황 등에 따라서 또는 관용어 등에서 수량과 수효를 불분명하게 드러내며 그저 많고 적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далан долоон(77)’와 ‘зуун долоон(107)’에 대한 구체적 예는 언급하지 않아서 제대로 확인 할 수는 없었지만, ‘далан долоон булчирхайгаа тоочих(모든 것을 말하다/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Тэр хүн зуун долоон юм ярьж бай на(저 사람 많은 말을 하고 있다/쓸데없는/)’과 같은 관용어의 ‘далан долоон(77→모든), ‘зуун долоон(107→많은)’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Ц.Тэрбиш(1994: 99)에서는 ‘олон, цөөн, нилээд, хэдэн’ 외에도 ‘хэдэн удаа(여러 번, 몇 번), хэсэг зуур(잠시, 잠깐, 임시적으로), маш олон(아주 많은), үй олон(아주 많은), үй түмэн(아주 많은, 모든), тоо том шгүй(무수한, 수많은), тоогүй олон(셀 수없이 많은), түг түмэн(수많은), мянга мянган(수많은/수천의/), сая сая(수많은/수백만의/)’ 등과 같은 단어들을 언급하고 있다.

수사(тодорхой тооны нэр)와 마찬가지로 ‘хэд, хичнээн, хэдий чинээн, хэдий хир’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지만 대답은 불분명(불명확)하게 한다.

현대몽골어의 ‘불분명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와 ‘분명수사(тодорхой тооны нэр)’는 실질적으로 한국어에 대해 서정수(1996: 539~541)에서 언급하고 있는 ‘확정수(確定數)’, ‘불확정수(不確定數)’와 의미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에도 불확정수로 ‘여럿, 모두’, ‘얼마, 몇’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몽골어의 불분명수사는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불확정수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김기성(2016b: 122~123) <표 6>에서 ‘불확정수/부정수/(고유어 불확정수 기본수사)의 b와 c’, ‘불확정수/부정수/(한자어 불확정수 기본수사)의 b와 c’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한국어에서 ‘얼마, 몇’은 동일한 형태의 ‘불확정수’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의문수’로도 쓰이는데 ‘얼마’는 수효나 수량을 묻는 데에 두루 쓰이고, ‘몇’은 수효를 물을 때에만 쓰인다고 언급하고 있다(서정수 1996: 540). 몽골어에서도 ‘몇, 얼마’와 유사한 의미의 ‘хэд’와 ‘хичнээн’ 등이 있으며,²⁷⁾ 이 또한 불분명수사 또는 의문수로 사용될 수 있다. 1차적으로 ‘хэд’는 ‘몇’과 ‘хичнээн’은 ‘얼마’ 등으로 대응시킬 수 있으리라 보고 있지만 이는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고 다양한 문맥, 담화 상황 등에 따라 서로가 뒤섞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김기성 2016a: 391-392) 몽골어에는 이러한 구분이 비교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불분명 수사에 대한 일부 예와 한국어의 대응 예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7) г.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д олон хүмүүс оролцов.

① 학술대회에 많은(여러,²⁸⁾ ...)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н. Надад нилээд мөнгө хэрэгтэй байна.

① 나에게는 (제법, 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ц. Надад хэдхэн төгрөг байна.

① 나에게 몇(?얼마, 어느 정도, ...)의 티그력이 있습니다.

② 나에게 몇(*얼마, ...) 폰(의) 티그력이 있습니다.

р. Надад хэдхэн мөнгө байна.

① 나에게 *몇(얼마, 어느 정도, ...)의 돈이 있습니다.

② 나에게 몇(*얼마, ...) 폰(의) 돈이 있습니다.

27) “일반적으로 ‘хэд(хэдэн)’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셀 수 있는 시간이나 수효, 수량 등을 물을 때, ‘хичнээн’은 하나하나 셀 수 없는 것 또는 양이 많거나 큰 덩어리 같은 것을 대략적으로 근사치로 물을 때 사용함으로써 일부 차이점을 지닌다.”(김기성 2016a: 391).

28) 한국어에서 불확정수로 사용되는 “여럿”은 관형어로 쓰일 때에는 ‘여러 책’과 같이 ‘스’이 탈락된다.”(서정수 1996: 540) 한국어에서 서정수(1996: 540)가 언급하고 있는 ‘불확정수’는 몽골어의 ‘불분명수사(불명확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 ‘어림수사(부정수사, 개수사 概數詞)/тойм тооны нэр/와 의미적으로 유사하다.

5. ‘어림수사(부정수사, 개수사 概數詞)/ТОЙМ ТООНЫ НЭР/’²⁹⁾와의 대조

현대몽골어의 ‘어림수사(부정수사, 개수사 概數詞)/ТОЙМ ТООНЫ НЭР/’는 사람과 사물 또는 특정 현상의 수효(개수)와 수량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저만큼하면서 대략적으로 어림해서 표현하는 것을 나타낸다. 주로 ‘хэд орчим?(어느 정도, 얼마만큼, ...), хэдий хиртэй?(어느 정도, 얼마만큼, ...)’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한다(Л.Балдан 1987: 65).

몽골어의 어림수사는 (1)기본수사에 ‘-аад’⁴⁾와 같은 접사를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연결하여 주로 ‘арваад(열 남짓, 여남은), хориод(스물 남짓), гучаад(서른 남짓), зуугаад(백 남짓), мянгаад(천 남짓)’ 등과 같이 끝이 0으로 끝나는 10단위의 기본수사에 연결하는 방법, (2)기본수사 뒤, 역시 주로 끝이 0으로 끝나는 10단위의 기본수사 뒤에 ‘орчим(хавьцаа, эргэм), хир, гаруй, шахам, илүү, ...’ 등과 같은 단어(보조사)들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3)‘гурав дөрвөн хонь[서넛(의) 양, 서너 마리(의) 양]’, ‘арван тав зургаан ямаа[열대여섯(의) 염소, 열대여섯 마리(의) 염소]’, ‘хоёр гурван зуун адуу[이삼백(의) 말, 이삼백 마리(의) 말]’처럼 순서대로 계속 이어지는 두 수를 연속 나열해 함께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표현한다.

어림수사는 형태론적 측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분배수사와 동일한 형태(‘-аад’⁴⁾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통사론적 의미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질문이 서로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림수사(부정수사, 개수사 概數詞)’는 ‘хэд орчим?(어느 정도, 얼마만큼), хэдий хир?(얼마, 어느 정도), хэдий чинээн?(어느 정도)’ 등과 같은 추정(어림짐작)의 질문과 그에 대답하는 반면, ‘분배수사(배분수사, 구분수사)’는 ‘хэд хэдээр?(몇 몇씩, 몇 몇으로)’ 등과 같은 분명한 질문과 그에 대답을 한다. 어림수사는 추정, 어림짐작의 의미를, 분배수사는 분배, 배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1)기본수사 또는 기본수사 다음에 오는 수량사(분류사) 뒤에 ‘25일쯤, 30세가량, 이십여 년, 9시경, ...’처럼 ‘-쯤, -가량, -여, -경, ...’ 등의 접미사를 연결하는 방법, (2)기본수사 또는 기본수사 다음에 오는 수량사(분류사) 뒤에 ‘다섯 평 남짓, 열 명 남짓, 백만 원 정도, 천만 정도, ...’처럼 ‘남짓, 정도, ...’와 같은 단어를 연결하는 방법, (3)두 개나 세 개의 기본수사를 ‘한둘/하나둘(한두)(1, 2), 두셋(두세)(2, 3), 서넛(서너)(3, 4), 네댓/너더댓/너덧/네다섯(4, 5), 대여섯(5, 6), 예닐곱(6, 7), 일고여덟/일여덟(7, 8), 여덟아홉/아홉(8, 9), 여남은(10여), 두서넛(2, 3, 4), ...’처럼 연속 나열, 합성해 사용하는 방법³⁰⁾ 등이 있다.

29) 본고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어림수사(부정수사, 개수사)’란 Ц.Тэрбиш(1994: 97)의 ‘approximative numeral’, Rita Kullmann, D.Tserenpil(1996: 246~249)의 ‘approximate numerals’,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377)의 ‘approximative numerals’와 Э.Вандуй(1966: 118~127), П.Бямбасан(1975: 73~83), Л.Балдан(1987: 55~69), Ц.Өнөрбаян(2004: 236~247),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2012: 145~148),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13~131) 등과 같은 기존의 여러 문법서에 소개되고 있는 ‘тойм тооны нэр’를 가리킨다. 현대몽골어의 ‘어림수사(부정수사, 개수사)’에 대한 ‘тойм тооны нэр’ 이외의 다양한 명칭 및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25~127)을 참조할 수 있다.

30) 김기성(2016b: 122~123)의 ‘〈표 6〉 한국어의 수사 체계 및 형태(용례)’에서 ‘불확정수/부정수/(고유어 불확정수 기본수사)의 a부분’, ‘불확정수/부정수/(한자어 불확정수 기본수사)의 a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몽골어와 한국어의 어림수사를 형성하는 접사, 단어, 기본수사의 형태들은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수사나 기본수사 뒤의 수량사에 접사나 단어 등을 연결하는 방법, 두 세 개의 기본수사를 연달아 나열, 합성하는 방법 등의 어림수사 형성 방법은 양 언어가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몽골어의 어림수사에 대한 일부 예와 한국어의 대응 예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8) 가. Тэнд хэдий хир үхэр байна вэ?

① 저기에 얼마 정도(어느 정도, 얼마만큼, ...)의 소가 있나요?

나. Тэнд жараад үхэр байна.

① 저기에 예순(육십) 남짓(정도, -가량, -쯤, *-여, *-경)(의) 소가 있습니다.

② 저기에 예순(육십) 여(*남)짓, *정도, *-가량, *-쯤, *-경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다. Бид хоёр зуу гаруй адуутай.

① 우리는 이백 남짓(정도, -가량, -쯤, *-여, *-경)(의) 말이 있습니다.

② 우리는 이백 여(*남)짓, *정도, *-가량, *-쯤, *-경 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라. Өчигдөр тэр хуралд хоёр гурван зуун хүн ирсэн.

① 어제 그 회의에 이삼백 남짓(정도, -가량, -쯤, *-여, *-경)(의) 사람이 왔습니다.

② 어제 그 회의에 이삼백 여(*남)짓, *정도, *-가량, *-쯤, *-경 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6. ‘지소수사(희소수사)/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³¹⁾와의 대조

현대몽골어의 ‘지소수사 指小數詞(희소수사 稀少數詞)/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는 사람 및 사물의 수효(수량)를 축소(감소) 제한한다거나 또는 불만족스럽다는 의미를 표현한다(Л.Балдан 1987: 67). 주로 ‘хэдхэн?, хэдүүлхэн?, хэдүүл?, хэд(хэдэн)?, хичнээн?’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한다(Э.Вандуй 1966: 125; Л.Балдан 1987: 67; Ц.Тэрбиш 1994: 99).

지소수사는 일반적으로 ‘기본수사(үндсэн тооны нэр)’, ‘집합수사(хам тооны нэр)’, ‘분배수사(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 ‘어림수사(гойм тооны нэр)’ 등의 어간에 ‘-хан’⁴⁾ 접사를 연결해 형성하는데, 기본수사에 연결하는 경우 어간형성의 ‘н(숨은н)’ 접사를 취하지 않은 채로 ‘ганцхан(нэгхэн), хоёрхон, гуравхан, дөрөвхөн, тавхан, зургаахан, долоохон, наймхан, есхөн, аравхан, ...’처럼 사용한다. 1의 지소수사로 ‘нэгхэн’ 외에 ‘ганцхан’도 사용하고 있음이 흥미로운데, 이들은 ‘하나뿐, 오직 하나, 겨우 하나, 하나 밖에 없는, ...’ 등에 대응시킬 수 있다. 지소수사는 문장 내에서 주로 관형어(한정어)의 기능을 수행하며, 간혹 물질명사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목적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31) 본고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지소수사(희소수사)’란 Ц.Тэрбиш(1994: 99)의 ‘limited numeral’, Rita Kullmann, D. Tserenpil(1996: 250)의 ‘diminutive numerals’와 Э.Вандуй(1966: 118~127), Л.Балдан(1987: 55~69) 등과 같은 기존의 여러 문법서에 소개되고 있는 ‘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를 가리킨다. 한편, П.Бямбасан(1975), Ц.Өнөрбаян(2004),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2012),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등은 해당 수사를 수사 체계에서 제외시키고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대몽골어의 ‘지소수사 指小數詞(희소수사 稀少數詞)/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 형태에 대응시킬 수 있는 한국어의 수량 어휘는 ‘단지 다섯, 오직 일곱, 겨우 셋, 넷뿐, ...’처럼 ‘단지, 오직, 겨우, 뿐, ...’ 등과 같은 단어, 보조사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대몽골어의 지소수사에 대한 일부 예와 한국어의 대응 예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9) ㄱ. Би ганцхан хүүхэдтэй.

① 나는 단지(오직, 겨우) 하나(의) 아이가 있습니다.

② 나는 ?하나뿐(인) 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아이가 하나뿐입니다.)

ㄴ. Дулмаа өчигдөр хоёрхон цаг ажилласан гэнэ.

① 돌마는 어제 단지(오직, 겨우) 두 시간 근무했습니다.

② 돌마는 어제 두(*뿐) 시간 근무했습니다. (돌마는 두 시간만 근무했습니다.)

ㄷ. Аав минь надад гурванхныг өгсөн.

① 아버지는 나에게 단지(오직, 겨우) 세 개를 주었습니다.

② 아버지는 나에게 세 개(*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은 세 개 뿐입니다.)

7. ‘분수사(소수사)/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³²⁾와의 대조

현대몽골어의 ‘분수사(소수사)/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는 어느 특정한 사물을 나누고 난 그 일부분을 나타낸다. 주로 ‘хэдний хэд?(몇의 몇, 몇 중의 몇, 몇 가운데 몇, 몇 분의 몇, ...)’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한다. 몽골어에는 분수사(소수사)를 나타내는 특별한 접사나 문법적 형태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분수사(энгийн б 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와 ‘소수사(аравтын тооны нэр)’로 구분할 수 있다.

분수사(분수)를 읽을 때에는 ‘분모(хуваарь)’부터 읽는데, 분모는 특정의 사물을 몇으로 나누었는지의 일반적 단위이며 항상 속격형태를 취해 관형어(한정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분자(хүртгвэр)’는 몇 %가 되는지를 나타내며 주격형태를 취하게 된다. 분모가 되는 수사를 속격어미로 연결해 먼저 말하며 그 다음 분자를 말한다. 또한 정수(бүхэл тоо)를 취한 분수를 읽을 때에는 ‘хоёр бүхэл гуравны нэг(2 $\frac{1}{3}$)’처럼 정수를 먼저 읽고 그 다음 ‘бүхэл’, 그 다음 분수의 분모, 분자 순으로 읽는다. 한편, 한국어의 분수사, 소수사는 한자어 기본수사로 표현한다. 분수사의 경우 ‘몇 분의 몇’으로 표현하며, 앞 숫자가 분모, 뒤 숫자가 분자가 된다. 정수를 취한 분수의 경우는 ‘몇과 몇 분의 몇’으로 나타낸다.

32) 본고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분수사(소수사)’란 Ц.Тэрбиш(1994: 100)의 ‘fractional numeral’,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378)의 ‘fractional numerals’와 Э.Вандуй(1966: 125~127), П.Бямбасан(1975: 83), Л.Балдан(1987: 68~69), Ц.Өнөрбаян(2004: 246~247),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2012: 147),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30~131) 등과 같은 기존의 여러 문법서에 소개되고 있는 ‘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를 가리킨다. 현대몽골어의 ‘분수사(소수사)’에 대한 ‘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 이외의 다양한 명칭 및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2014: 130)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Rita Kullmann, D.Tserenpil(1996)에서는 이를 수사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10) ㄱ. ① 1/2 : хоёрны нэг(이분의 일), ② 2/3: гуравны хоёр(삼분의 이),
 ③ 3/4 : дөрвөний гурав(사분의 삼)
 ㄴ. ① 2¹/₃ : хоёр бүхэл гуравны нэг(이와 삼분의 일),
 ② 5²/₃: тав бүхэл гуравны хоёр(오와 삼분의 이)

소수사는 ‘정수’, ‘분모’, ‘분자’ 순으로 읽는데, (1)‘... бүхэл аравны(зууны) ...’와 같은 방법 (2)‘정수(수사) ... -ны(-ний) ...’와 같은 방법으로 읽거나 쓴다(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130). 한편 한국어 소수사의 경우는 ‘몇 점 몇’처럼 표현한다.

- (11) ㄱ. ① 0.7 : тэг бүхэл аравны долоо(영 점 칠)
 ② 2.67: хоёр бүхэл зууны жаран долоо(이 점 육칠)³³⁾
 ㄴ. ① 0.7 : тэг аравны долоо(영 점 칠)
 ② 2.67 : хоёр зууны жаран долоо(이 점 육칠)

일부 분수사(소수사)를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다른 단어(사물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특별한 명사)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хоёрны нэг(1/2)’ 또는 ‘50%’를 ‘хагас, тэн хагас, тэг дундуур, тал дундуур, тал, өрөөл’ 등으로, ‘дөрвөний нэг(1/4)’ 또는 ‘25%’를 ‘талын тал, хугас, мөч’ 등으로, 쌍을 이루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를 ‘өрөөсөн(한쪽, 한 짝)’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2014: 130).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이분의 일, 반, 절반, 반쪽, ...’, ‘사분의 일, 반의 반, ...’ 등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몽골어의 수사(數詞) 체계 속에서 ‘집합수사(хам тооны нэр/collective numerals)’, ‘분배수사(түгээл тооны нэр/distributive numerals)’, ‘반복수사(дахих тооны нэр/multiplicative numerals)’, ‘불분명수사(тодорхойгүй тооны нэр/unclear numerals)’, ‘어림수사(тойм тооны нэр/approximative numerals)’, ‘지소수사(хязгаарласан тооны нэр/diminutive numerals)’, ‘분수사(бутархай тооны нэр /fractional numerals)’ 등의 형태 및 구성, 또한 그의 의미, 기능, 용법 등을 정리해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응 가능한 한국어 수사(數詞) 및 수량사구(數量詞句) 등과 서로 대조해 보았다. 양 언어의

33) 몽골어의 경우 ‘2.67(이 점 육칠)’을 마치 분수를 읽는 것처럼 ‘хоёр бүхэл зууны жаран долоо(*이와 백의 육십칠)’처럼 표현하는데 반해, 한국어는 소수를 점으로 처리하고 뒤의 수들을 홀자리 수처럼 따로 따로 하나씩 끊어 읽으므로 한국어와 몽골어의 소수사 표현은 차이가 있다.

수사에서 나타나는 일부 특징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일부 수사는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1. 집합수사의 경우, 어느 특정한 문장에서 각 문장성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 서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2. 집합수사의 경우, 현대몽골어나 한국어 모두 ‘1’이라고 하는 수사를 집합수사의 의미로 표현하고자 할 때, 다른 수사들처럼 ‘-уул, -гүүл’ 또는 ‘-이, -이서’ 등을 연결하지 않고 저마다 ‘ганцаар(аа)’ 또는 ‘혼자, 혼자서’라고 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다.
3. 분배수사의 경우, 양 언어가 모두 기본수사를 반복 사용해서 분배수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분배수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적 측면에서 서로가 유사하다.
4. 어림수사의 경우, 몽골어와 한국어의 어림수사를 형성하는 접사, 단어, 기본수사의 형태들은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수사나 기본수사 뒤의 수량사에 접사나 단어 등을 연결하는 방법, 두 세 개의 기본수사를 연달아 나열, 합성하는 방법 등의 어림수사 형성 방법은 양 언어가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일부 수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1. 집합수사의 경우, 몽골어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어에는 사람의 수효를 헤아릴 때만 사용하는 ‘-이서’와 같은 다른 형태가 있다.
2. 분배수사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다섯 권(씩)의 책’처럼 한정하는 수사 ‘다섯’과 피한정의 명사 ‘책’ 사이에 수량사(분류사) ‘권’ 등이 오는 경우가 거의 필수적인데 반해, 몽골어에서는 ‘таван ном[다섯 (권)의 책]’처럼 수량사(분류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반복수사의 경우, 현대몽골어에서는 ‘удаа’와 ‘дахин’ 같은 단어를 생략하고 그냥 수사 자체만으로 뒤에 오는 동사와 연결해 반복수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이에 대응시킬 수 있는 ‘번’, ‘차례’, ‘번 다시’, ‘배’ 등의 단어를 이처럼 생략해 사용할 수 없다.
4. 불분명수사의 경우, 한국어에서 ‘얼마’는 수효나 수량을 묻는 데에 두루 쓰이고, ‘몇’은 수효를 물을 때에만 주로 쓰이는데 반해, 몽골어에는 이러한 구분이 비교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몽골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경우도 특정 수사가 어느 하나의 의미, 기능만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후문맥의 상황, 주변 환경, 담화 상황, 문장 내의 성분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문장 또는 문맥 내에서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해 적절한 수사(수량사구)와 그의 대응형태를 선택, 사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 「현대 몽골어의 분류사와 양화구문」, 『몽골학』 제3호, 한국몽골학회, 1995.
- 김기성,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의문사 대조 연구」, 『국어교육』 152, 한국어교육학회, 2016a.
- 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기본수사(基本數詞)’, ‘순서수사(順序數詞)’ 대조 연구」, 『몽골학』 47, 한국몽골학회, 2016b.
- 김승곤, 『현대표준말본』, 한국문화사, 2003.
- 김인균, 「국어의 수사 범주론」, 『한국어학』 Vol. 39, 한국어학회, 2008.
- 김종록,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도서출판 박이정, 2008.
- 남기성 ·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제4판, 도서출판 박이정, 2014.
- 서정수, 『국어문법(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 아론자르갈, 「한국어와 몽골어의 분류사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학위논문, 2015.
- 양문용 · 민현식,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1993.
- 우형식, 『학습 활동을 겸한 한국어 문법론』,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3.
- 유원수, 『몽골의 언어와 문화』, 소나무, 2009.
- 이관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2005.
- 이성규, 「몽골어와 한국어의 수사체계 비교연구」, 『몽골학』 21, 한국몽골학회, 2006.
-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채완, 「수의 표현과 의미」,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2001.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94.
- 최형용, 『한국어 형태론』, 역락, 2016.
- Ж.Лувсандорж, 「Хорьдугаар хичээл, хэлзүйн тайлбар」, 『Монгол хэл сурах бичиг』, БНМАУ Сай д нарын зөвлөлийн улсын дээд, тусгай дунд, техник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хорооны хэв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1976.
- Л.Балдан, 「Тооны нэ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зүйн байгуулал /Тэргүүн дэвтэр/』, Улаанбаатар, 1987.
- П.Бямбаса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ийн бүтэц, нэр үгсийн аймаг』, БНМАУ Ард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ы хэв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1975.
- Ц.Жанчивдорж, Б.Рагчаа,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 БНМАУ Гэгээрлийн яамны хэв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1967.

- Ц.Өнөрбая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2004.
- Ц.Өнөрбаян, Л.Жумдаан, 『Тооны нэ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2012.
- Ц.Тэрбиш, 『Монгол хэл өөрөө сур』, Улаанбаатар, 1994.
- Э.Вандуй, 『Тооны нэ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зүй』,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хэрэг эрхлэх хороо, Улаанбаатар, 1966.
- Ю.Мөнх-Амгалан, Кан Ши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тээвэр судлал II』, Улаанбаатар, 2014.
- Rita Kullmann, D.Tserenpil, 『Mongolian Grammar』, Jensco Ltd., Hong Kong, 1996.

* 이 논문은 2016년 11월 25일에 투고되어,
2016년 12월 6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2월 3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Contrastive Study of Numerals Between Modern Mongolian and Korean — Focused on Collective, Distributive, Multiplicative, Unclear, Approximative, Diminutive, Fractional Numerals of Modern Mongolian —

Kim, Kisung*

In this study I summarized the morphology, composition, its meaning and the function of modern Mongolian numerals(focused on collective, distributive, multiplicative, unclear, approximative, diminutive, fractional numerals) and did contrastive analysis of having relevance to between Korean numerals and Mongolian one based on the study of this.

From the investigating some numerals identified in modern Mongoli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its results are roughly summarized as follows.

In some numerals seen in modern Mongoli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there are appeared following similarities.

1. For collective numerals, their meanings may be varied depending on where and how each constituent of sentence is cut and read in a certain sentence.
2. For collective numerals, when the numeral of '1' is intended to be expressed as a collective numeric meaning in both modern Mongoli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the both languages use a unique and special word of 'ганцаар(aa)' or '혼자(alone), 혼자서(by oneself)', respectively without using a connective postposition like '-уул, -үүл' or '-이, -이서' different from the case of other numerals.
3. For distributive numerals in both languages, the both languages can express the meanings of distributive numerals by repeatedly using basic numerals, so the both language are similar in the methodological aspect expressing the meanings of distributive numerals.
4. For approximate numerals, while the forms of affixes, words and basic numerals forming approximate numerals are different one another in modern Mongoli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but the both languages are relatively similar in the methods forming approximate numerals such as how to connect an affix or a word to a basic numeral or a quantifier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following a basic numeral, how to consecutively arrange and synthesize two or three basic numerals.

In some numerals in modern Mongoli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there are appeared the following differences.

1. For collective numerals, there is different forms like ‘-이서’ being used at counting the number of people while this form of collective numeral is not separately existed in modern Mongolian.
2. For distributive numerals, while Korean language almost necessarily uses a quantifier (classifier) between a numeral (numeric adjacent) modifying a noun seen in this example of ‘다섯 권(씩)의 책(five books)’-here, ‘다섯’ is a numeral meaning 5, the ‘권’ is a quantifier (classifier) meaning the unit noun of book, and the ‘책’ means a plural noun meaning book-, but in modern Mongolian language, there are a lot of cases not using any quantifier (classifier) seen in the example of ‘таван ном[다섯 (권)의 책]’.
3. For repetitive numerals, while in modern Mongolian language, there are some cases that meanings of repetitive numerals are expressed by connecting numerals with the following verbs with omitting the words such as ‘удаа’와 ‘дахин’, but Korean language can’t omit a repetitive or multiplicative numeral like ‘번’, ‘차례’, ‘번 다시’, ‘배’ (the all words mean -times) to be corresponded with the following verbs.
4. For unclear numerals, while the word of ‘얼마 (how many/much)’ is widely used in asking quantity or amount and the word of ‘몇’ (how many) is mainly used in asking the quantity in Korean language, but this distinction is not unclear in modern Mongolian.

[Key Words] ‘collective numerals(집합수사)’, ‘distributive numerals(분배수사)’, ‘multiplicative numerals (반복수사)’, ‘unclear numerals(불분명수사)’, ‘approximative numerals(어림수사)’, ‘diminutive numerals(지소수사)’, ‘fractional numerals(분수사)’, ‘수량사(quantifier)’, ‘분류사(classifier)’

